

# 증권사, 3분기 실적 '양호'할 듯... '1兆 클럽' 재등장 주목

5대 증권사 예상 영업이익, 33.6% ↑  
금투세 논란 등 국내증시 부진에도  
해외주식 거래대금 급증에 감소 상쇄

국내 증시 부진으로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해외주식 수수료 증가에 힘입어 증권사들이 3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4분기 실적도 순항할 것으로 예상돼 연간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한 증권사의 재등장이 기대되고 있다. 13일 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한국금융투자·NH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 등 5대 증권사의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조3033억원으로 전년 동기(9773억원) 대비 33.36% 증가할 전망이다. 순이익도 7449억원에서 1조11억원으로 2562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 등으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국내 증시



여의도 증권가 전경.

/손진영 기자 son@

의 3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18조11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0% 감소했지만 증권사들은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 이는 해외 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이 1405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36.2% 늘면서 국내 주식 거래대금의 감소를 상

쇄했기 때문이다.

업체별로 보면 NH투자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204억원으로 전년 동기(1184억원)에 비해 86.15% 증가, 개선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미래에셋증권(2771억원), 한국금융투자

(2964억원), 삼성증권(2603억원) 등은 전년 동기 대비 60.08%, 39.42%, 29.3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분기에 271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키움증권은 올 3분기에 2491억원으로 8.39%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큰 폭으로 증가한 해외 주식 거래대금이 부진한 국내 증시 거래대금을 상쇄한 데다 채권발행(DCM) 시장 활성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재개 등으로 기업금융(IB)부문에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순상품운용손익 및 기타 손익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4분기에도 대형사의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리 하락 시기에 주식 시장이 활성화돼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WM) 수익이 대폭 증가는 물론 채권 가격 상승으로 평가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

기에도 부동산PF 및 해외부동산펀드 총당금 및 손상 부담도 축소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취를 감췄던 연간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드는 증권사가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부동산PF, 해외부동산손실, 차익결제거래(CFD) 등의 악재로 인해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한 업체가 전무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대형증권사 중심의 성장 흐름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 계좌(IMA) 등은 자본규모에 따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부동산PF 규제 역시 자본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B를 통한 상품 공급, 대형사 중심의 해외주식 서비스 등은 고객의 선택을 대형사로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출판株,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열풍'에 들쭉 '수주 호조' 방산株, 추가 상승세 무계

한세에스24홀딩스, 상한가 기록  
예림당, 경영권 등 '더블 테마주' 등극  
웅진씽크빅 등 출판 관련기업도 급등

소설가 한강이 국내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증권가에도 '한강 열풍'이 불고 있다. 도서 판매량 급증뿐만 아니라 출판·전자책 기업의 주가도 초강세를 보였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예스24의 모회사인 한세에스24홀딩스(30.00%)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스닥에서는 컴퍼니케이(29.98%), 예스24(29.81%), 예림당(29.79%) 등 3개 종목이 상한가로 직행했다.

독서 인구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출판 관련주는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었으나 '노벨상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신드롬을 맞이한 것이다. 실제로 예림당을 제외하고는 전날이었던 10일에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예림당은 최근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



'2024년 노벨 문학상' 영예는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에게 돌아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는 작가. /뉴시스

관련주로 분류됐으며, 현재는 노벨상 테마주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더블 테마주'로 등극했다.

지난 10일 스웨덴 한림원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한강을 선정했다.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 주문이 폭주했고, 사이트 마비·물량 부족 등을 발생시켰다.

같은 날 웅진씽크빅(17.85%), 삼성출판사(14.24%), 웅진(7.80%) 등 출판 관련 기업들도 일제히 급등했다. 더불어 출판사 창비의 출판 물류를 담당하는 다산네트웍스(14.24%)와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밀리의서재(23.63%) 등이 크게 올랐다. 밀리의서재는 한강 작가의 작품이 등록돼 있지 않음에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혜를 입은 모습이다.

'한강 열풍'은 국내를 넘어 유럽·아시아 등 전세계 출판계를 강타하며 'K문학'의 글로벌 성장력을 주목시키고 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와 '작별하지 않는다'가 부문별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인기를 입증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강의 놀라운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K팝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으로 상징되는 'K컬처'가 K문학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랠리에도 '꽂꽂'

52주 최저가 '5만8900원' 기록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부진 여파로 '5만전자'로 주가가 떨어지자 10월에도 임원진의 자사주 매입 랠리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주가의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에만 삼성전자 임원 및 사외이사는 1만1987주의 자사주를 사들였다. 지난9월에만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을 필두로 회사 주요 경영진들은 자사주 51억원치를 매입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10월 들어 6만원 초반대로 하락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이후 잠시 멈췄던 자사주 매입 행렬도 지난4일부터 다시 시작됐다. 대표적으로 노태문 모바일경영(MX) 사업부장(사장)은 자사주 5000주(보통주, 주당 6만원)를 총 3억원에 매입했다. 이번 달에는 김한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자사주 3330주(보통주, 주당 6만2000원)를 약 2억466만원에 사들여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박용인 시스템LSI 사업부장(사장) 3000주 ▲최진혁 미주 메모리연구소장(부사장) 3000주 ▲박훈철 호퍼민 SEJC 상무 357주(우선주) 순으로 자사주 매입 움직임을 이어갔다.

임원들이 실적부진에 대한 책임경영

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영현 부회장(DS)까지 이례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내렸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10일 52주 최저가(5만8900원)를 기록했다. 이는 계속 빠져나가는 외국인 영향이 크다. 외국인은 지난달 3일부터 23거래일 연속 순매도세(약 10조6593억원 매도)를 보였다.

다만 증권가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침체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목표주가 추가가 하향은 멈춘 분위기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진했던 낸드 수익성도 가격 반등으로 빠르게 정상화 중이고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휴전 변수에도 관련 종목 견조한 실적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감이 이어지면서 국내 방산 관련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가 주목받고 있다. '휴전'이라는 변수는 남아 있지만, 증권가는 중동을 넘어선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 지속과 탄탄한 수주 규모를 이유로 방산주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방산 관련 종목들은 지난 10일 일제히 하락하다 하루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산 대장주 중 하나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거래일(10일) 대비 6000원(1.71%) 오른 35만6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올해 초 주가에 비해 약 174.87% 가량 상승한 수치다. 이 밖에도 현대로템(1.15%) 등도 단기 급등에 따른 주가 숨고르기 후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10월에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4.93% ▲현대로템 14.74% ▲LIG넥스원 14.93% 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코스피가 2500선에서 지지부진한 것과 비교하면 큰 상승폭을 그린 셈이다. 코스피는 같은 기간 약 0.1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시장은 전쟁이 휴전 국면에 들어가도 방산 관련 종목들이 견조한 실적을 바



10일 증가 기준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거래일보다 전일 대비 3.84%(1만4000원) 하락한 35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탕으로 추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방산기업들의 목표주가를 높이는 추세다.

'방산 대장주'로 불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NH투자증권은 33만원에서 42만5000원으로, 교보증권은 35만8000원에서 43만3000원으로 기존 목표주가를 수정했다. 또한 iM증권은 LIG넥스원의 목표가를 19만6000원에서 28만7000원으로 크게 상향했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MLRS)의 폴란드 1차 계약분 인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전쟁 이슈를 제외하고서라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수주받은 잔고만 30조원에 달해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허정윤 기자

## 한투증권, 인니에 국내 첫 SW 상품 11종 상장

(구조화워런트)

"다른 파생상품 위한 마중물 될 것"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거래소(IDX)에 '구조화워런트(SW, structured warrant)' 상품 11종을 상장했다.

13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SW 상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구조

화워런트(SW)'는 한국 시장에서 ELW(주식워런트증권)로 불리는 구조화상품의 한 종류다. 이는 2022년 9월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처음 도입됐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시장에 도입된 첫 파생상품으로 비교적 역사는 짧지만 향후 주식선물 및 옵션 등 다른 파생상품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